

종합·지방자치

참 담담한 민주 비대위원장 선출

마감 하루 앞두고 대선 패배 성찰보다 계파별 눈치보기 계속

박 “가급적 합의 추대”

민주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놓고 막판까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선 패배라는 엄중한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보다는 당내 역학구도를 염두에 둔 계파별 눈치보기로 계속되면서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기준 원내대표는 7일 역대 원내 대표단과 오찬을 함께 하며 막바지 의견 수렴 작업을 이어갔다.

비대위원장 선임기구인 당무위·의원총회 회선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8 일에는 초선의원들과 ‘미니 의총’ 형식으로 면담한다. 박 원내대표는 막판까지 당내 의견 수렴을 한 뒤, 9일 연설회의 보고를 거쳐 다수 의견에 기초해 가급적 합의 추대로 비대위원장장을 만들어 낸다는 방침이다.

현재 당내 중진 및 원로들은 당내 화합과 대선 패배 후유증 수습에 방점을 둔 ‘관리형 다선 주대 카드’를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고문단과 시도당위원장단도 지난 3~4일 박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조기전대본과 관리형 비대위 구상을 향해 실을 바 있다.

이를 반영하듯, 계파색이 짙은 4선의 박병석 국회의장과 5선의 이석현, 4선의 원혜영 의원 등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구 민주계 중심의 민주현정포럼 소속 전직의원 80명은 정대철 상임고문

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맞서 초·재선 그룹 일각에선 ‘혁신형 비대위’ 구성을 명분으로 3선의 박영선 의원을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민초네 등 초선 그룹 내부에서도 단일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데다 박 의원이 선대위 핵심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비주류를 중심으로 부정적 기류가 강한 상황이다.

비주류의 황주홍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고성국의 아침저널’에 출연, “질수 없는 선거를 쳤다고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책임론을 제기한 뒤, “새 지도부가 오는 4월 보선

을 맞이해야 한다”며 관리형 비대위 구성 및 조기 전대 개최를 주장했다.

반면 범진노계의 초선 박범계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 “비상대권을 가진 혁신형 비대위원장이 대내적 비상대권을 갖고 5월 전대까지 혁신과 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선의 정경래 의원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며 ‘야성을 회복할 선명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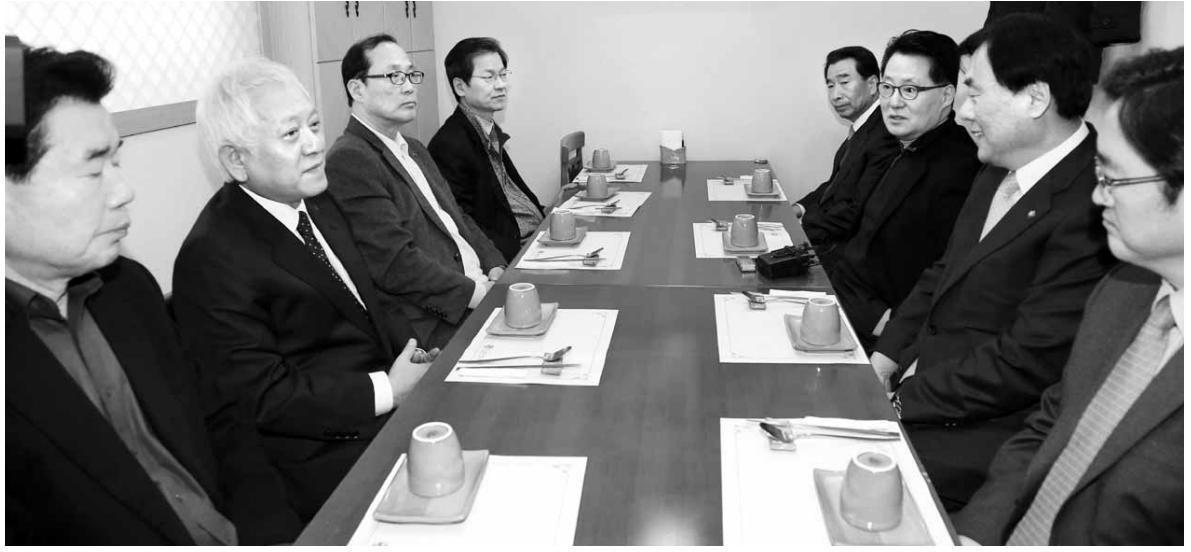
이처럼 내부 의견이 계속되면서 9 일 연설회의에서 합의 추대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오히려 비대위원장 합의 추대를 놓고 계파간의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비대위원장이 합의 추대되더라도 당내 계파의 압력을 뿌리치고 혁신과 혁신의 동력을 얻을 것인지 미지수다. 계파 간의 힘 겨루기에 전 대회를 앞두고 어정쩡한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이 합의 추대되더라도 민주당의 신성을 견인해내고 전당대회를 잘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어정쩡한 비대위원장이 계파 간의 단합으로 선출된다면 민주당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통합당 박기준 원내대표가 7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역대 원내대표와 오찬을 갖고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진표, 김한길, 장영달, 천정배, 이강래, 박지원 전 원내대표, 박기준 원내대표, 우원식 원내 수석부대표.

새해 새 설계

송 광운 광주 북구청장

“첨단과학도시 인프라 확충”



자원을 관광벨트화하고 중의 종합 예술공원과 문화동 시화문화마을 조성, 광주고도소 부지에 민주·인권·평화센터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연 친화적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사람 중심의 편안한 주거환경조성에도 힘을 요량이다.

송 구청장은 “운정동 위생매립장 환경생태공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운암동 제3근린공원과 빛고을 산들길 조성, 스토리텔링 금길인 걷고 싶은 누리길 조성 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휴식 공간을 더욱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송 구청장은 현재 광주시 주도로 추진 중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IC~광산 IC간 확장공사와 올해 말 완공 예정인 무등경기장 새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구청장은 “가능성과 잠재력이 풍부한 북구에 올 한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한 지혜와 열정을 모아 새롭고 한층 성숙한 북구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무등산권 관광 벨트화

실버시설 계속 늘릴것

운정동 생태공원 추진

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송 구청장은 “신안·중흥동에 노인복지관과 국민체력증진센터를 건립하는 등 도심지역의 실버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구립 일곡·운암도서관과 북구 청학회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자원봉사를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천연기념물인 총효동 왕버들을 비롯한 무등산권 생태·문화

광주 유일 새누리당 기초의원

박삼용 광산구의원 활동 기대

민

국정원 중간수사 발표

서울경찰청장 고발키로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도씨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7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선 사흘을 앞둔 지난 12월 16일 밤 11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주도로 발표된 중간 수사 결과가 거짓으로 판명났다”면서 김 청장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전 국정원 직원의 양심선언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켜보고 제대로 진행되거나 보수당이 요구한 검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 새누리당에 입당, 박근혜 당선인을 도왔던 박삼용 광산구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기대된다.

광주지역 유일한 새누리당 기초의원이 된 박 의원은 지역발전 사업비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으로, 수시로 중앙당과 광주시당을 방문해 광산지역 현안 설명에 힘을 쏟고 있다.

박 의원은 우선 광산구가 송정권의 구도심과 첨단·수완지구 등 신도심으로 나눠져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또 광산 발전을 위한 장·단기 사업으로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및 역세권 개발 ▲광산교育청 유키 ▲신촌근린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비전 부재·전략적 실패가 패배 요인”

민주, 대선평가토론회서 지적

민주, 인수위 인선 등 연일 공세

민주통합당 진보 성향 지식인 모임인 좋은정책포럼이 7일 주최한 대선 평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민주당의 대선 패배 요인으로 반성의 부재, 비전의 부재, 전략적 실패,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실패 등을 꼽았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18대 대선 평가와 진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민주당의 집단적 기억력은 2 주에 불과하다”며 “(선거에서) 큰 패배를 하면 정당 이상이 작동해 정당의 장래를 고민하지만, 2주가 지나면 다시 계파적 이해가 고개를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총선과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며 대선에서 참패했다”며 “문재인 후보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차별화할 전략적 구도를 찾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따랐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민주당은 2002년 대선을 칠하게 됐을 때 ‘2030세대 중심 세대전략’과 ‘영남후보론’을 내세웠고 이 전략을 100% 달성했음에도 졌다”며 “민주당은 전략적 원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통합당은 7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허니문’ 조기 종식의 책임을 인수위의 인선 문제 등으로 돌리며 충공세를 펼쳤다.

특히, 인수위 윤창중 대변인과 박효중 정무부 장관과 간사, 이동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선 등을 겨냥하면서는 비판을 이어나갔다.

박기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현안 대책회의에서 “박 당선인과 집권세력이 허니문을 깨고 또 다른 길로 가는 게 안타깝다”며 “밀봉인사에 이어 극보수 이념인사까지 왜 승자가 하나 문을 깨려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고 비판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극우 보수 인사들의 포진은 앞으로 5년간 박 당선인 인사의 서막으로 보여 국민이 불안하게 생각한다”면서 “인수위 대변인이 언론에 공갈치고 애당을 무시하는 발언을 삼아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또 이동호 후보자에 대해 “친일재산 환수 문제나 위안부 할머니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볼 때 친일인지 보수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의 정체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한공인중개사

★신축원룸 매매전문★

★ 쌍촌동 운천역 2분 상무시장 뒤 15개 (주택), 옥탑1, 월600만원, 월2억5천만 원, 17억3천만 원, 10억3천만 원, 10억2천만 원, 10억1천만 원, 10억, 9억5천만 원, 9억4천만 원, 9억3천만 원, 9억2천만 원, 9억1천만 원, 9억, 8억5천만 원, 8억4천만 원, 8억3천만 원, 8억2천만 원, 8억, 7억5천만 원, 7억4천만 원, 7억3천만 원, 7억2천만 원, 7억, 6억5천만 원, 6억4천만 원, 6억3천만 원, 6억2천만 원, 6억, 5억5천만 원, 5억4천만 원, 5억3천만 원, 5억2천만 원, 5억, 4억5천만 원, 4억4천만 원, 4억3천만 원, 4억2천만 원, 4억, 3억5천만 원, 3억4천만 원, 3억3천만 원, 3억2천만 원, 3억, 2억5천만 원, 2억4천만 원, 2억3천만 원, 2억2천만 원, 2억, 1억5천만 원, 1억4천만 원, 1억3천만 원, 1억2천만 원, 1억, 9억5천만 원, 9억4천만 원, 9억3천만 원, 9억2천만 원, 9억, 8억5천만 원, 8억4천만 원, 8억3천만 원, 8억2천만 원, 8억, 7억5천만 원, 7억4천만 원, 7억3천만 원, 7억2천만 원, 7억, 6억5천만 원, 6억4천만 원, 6억3천만 원, 6억2천만 원, 6억, 5억5천만 원, 5억4천만 원, 5억3천만 원, 5억2천만 원, 5억, 4억5천만 원, 4억4천만 원, 4억3천만 원, 4억2천만 원, 4억, 3억5천만 원, 3억4천만 원, 3억3천만 원, 3억2천만 원, 3억, 2억5천만 원, 2억4천만 원, 2억3천만 원, 2억2천만 원, 2억, 1억5천만 원, 1억4천만 원, 1억3천만 원, 1억2천만 원, 1억, 9억5천만 원, 9억4천만 원, 9억3천만 원, 9억2천만 원, 9억, 8억5천만 원, 8억4천만 원, 8억3천만 원, 8억2천만 원, 8억, 7억5천만 원, 7억4천만 원, 7억3천만 원, 7억2천만 원, 7억, 6억5천만 원, 6억4천만 원, 6억3천만 원, 6억2천만 원, 6억, 5억5천만 원, 5억4천만 원, 5억3천만 원, 5억2천만 원, 5억, 4억5천만 원, 4억4천만 원, 4억3천만 원, 4억2천만 원, 4억, 3억5천만 원, 3억4천만 원, 3억3천만 원, 3억2천만 원, 3억, 2억5천만 원, 2억4천만 원, 2억3천만 원, 2억2천만 원, 2억, 1억5천만 원, 1억4천만 원, 1억3천만 원, 1억2천만 원, 1억, 9억5천만 원, 9억4천만 원, 9억3천만 원, 9억2천만 원, 9억, 8억5천만 원, 8억4천만 원, 8억3천만 원, 8억2천만 원, 8억, 7억5천만 원, 7억4천만 원, 7억3천만 원, 7억2천만 원, 7억, 6억5천만 원, 6억4천만 원, 6억3천만 원, 6억2천만 원, 6억, 5억5천만 원, 5억4천만 원, 5억3천만 원, 5억2천만 원, 5억, 4억5천만 원, 4억4천만 원, 4억3천만 원, 4억2천만 원, 4억, 3억5천만 원, 3억4천만 원, 3억3천만 원, 3억2천만 원, 3억, 2억5천만 원, 2억4천만 원, 2억3천만 원, 2억2천만 원, 2억, 1억5천만 원, 1억4천만 원, 1억3천만 원, 1억2천만 원, 1억, 9억5천만 원, 9억4천만 원, 9억3천만 원, 9억2천만 원, 9억, 8억5천만 원, 8억4천만 원, 8억3천만 원, 8억2천만 원, 8억, 7억5천만 원, 7억4천만 원, 7억3천만 원, 7억2천만 원, 7억, 6억5천만 원, 6억4천만 원, 6억3천만 원, 6억2천만 원, 6억, 5억5천만 원, 5억4천만 원, 5억3천만 원, 5억2천만 원, 5억, 4억5천만 원, 4억4천만 원, 4억3천만 원, 4억2천만 원, 4억, 3억5천만 원, 3억4천만 원, 3억3천만 원, 3억2천만 원, 3억, 2억5천만 원, 2억4천만 원, 2억3천만 원, 2억2천만 원, 2억, 1억5천만 원, 1억4천만 원, 1억3천만 원, 1억2천만 원, 1억, 9억5천만 원, 9억4천만 원, 9억3천만 원, 9억2천만 원, 9억, 8억5천만 원, 8억4천만 원, 8억3천만 원, 8억2천만 원, 8억, 7억5천만 원, 7억4천만 원, 7억3천만 원, 7억2천만 원, 7억, 6억5천만 원, 6억4천만 원, 6억3천만 원, 6억2천만 원, 6억, 5억5천만 원, 5억4천만 원, 5억3천만 원, 5억2천만 원, 5억, 4억5천만 원, 4억4천만 원, 4억3천만 원, 4억2천만 원, 4억, 3억5천만 원, 3억4천만 원, 3억3천만 원, 3억2천만 원, 3억, 2억5천만 원, 2억4천만 원, 2억3천만 원, 2억2천만 원, 2억, 1억5천만 원, 1억4천만 원, 1억3천만 원, 1억2천만 원, 1억, 9억5천만 원, 9억4천만 원, 9억3천만 원, 9억2천만 원, 9억, 8억5천만 원, 8